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CNBC: 트럼프, 연준 의장 후보에 11명 검토
- Bloomberg: 연방재무장관, 연준에 1.5% 이상 금리 인하 촉구

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트레이더들, 어제 물가 발표후 곧 금리 인하에 베팅
- CNBC: 물가 지표 발표에 국채 금리도 하락

[무역전쟁]

- Reuters: 제조업체들, 관세 피해 줄이기 위해 AI 사용
- WSJ: GE 얼라이언스, 관세 극복 위해 미에 30억불 투자 계획

[주택]

- CNBC: 주간 모기지 재융자 수요 23% 증가

[오일]

- WSJ: IEA, 글로벌 오일 공급 전망 상향 조정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YahooFinance: 아마존, 월마트 등과 경쟁 위해 당일 배송 확대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[미국 경제]

CNBC: Trump considering 11 candidates for Fed chair, including David Zervos and Rick Rieder, sources say
트럼프, 연준 의장 후보에 11명 검토

-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5월에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11명의 후보자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관련 소식통은 밝혔다.
- 이 가운데는 Jefferies의 선임 시장 전략가 David Zervos, 전 연준 이사 Larry Lindsey와 그리고 블랙스톤의 CIO인 Rick Rieder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.
- 또한 현재 연준 부의장인 Michelle Bowman와 Philip Jefferson 그리고 현 연준 이사인 Chris Waller도 물망에 올랐다. 이밖에 달러스 연준 총재인 Lorie Logan과 전 세인루이스 연준 총재인 James Bullard도 검토되고 있다.
- 이렇게 많은 후보자가 거론되는 것은 후임 지명자가 급박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시사된다.

CNBC 기사

Bloomberg: Bessent Urges Fed to Lower Rates by 150 Basis Points or More

연방재무장관, 연준에 1.5% 이상 금리 인하 촉구

- 연방재무장관인 Scott Bessent는 연준의 기준 금리가 지금보다 적어도 1.5% 이상 낮아야 한다고 제안했다.
- 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은 올해 9월에 0.5% 금리 인하를 필두로 최종적으로 1.5%나 1.75%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.
- 그는 “연준 관리들은 지난번 정례회의 수일만에 노동시장 지표가 나온 것을 알았다면 금리를 인하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 연방 노동 통계국은 8월 1일에 5월과 6월의 일자리가 25만8천개가 줄었다고 발표했었다.

Bloomberg 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Bets on Outsize Fed Cut Gain Steam as CPI Data Backs Dove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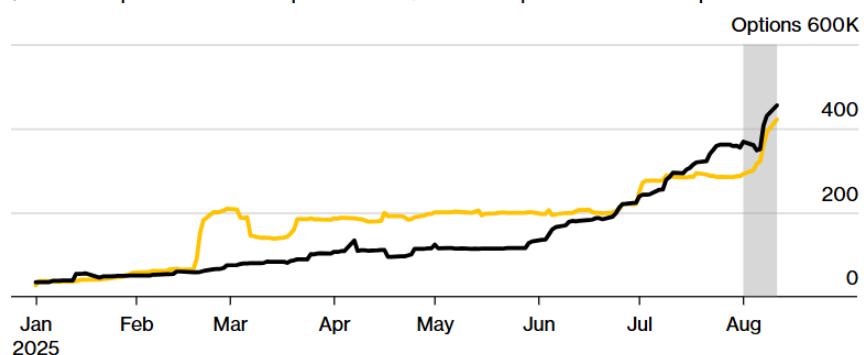
트레이더들, 어제 물가 발표후 곧 금리 인하에 베팅

- 어제 발표된 인플레 지표 발표로 인해 트레이더들은 곧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 이라는데 베팅하고 있다. 특히 일부 트레이더들은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고 있다.
- 트레이더들은 올 9월에 금리가 0.25% 이상 인하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으며 특히 연방재무장관과 블랙스톤의 CIO인 Rick Rieder는 0.5% 금리 인하가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.
- 반면에 다른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하기 전에 더 많은 경제 지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.

Open Interest Builds in SOFR Options

Positioning rising in strikes involved in half-point Fed cut play

✓ SOFR Sep25 96.125 calls - open interest ✓ SOFR Sep25 96.250 calls - open interest



Source: Bloomberg, CME

Bloomberg 기사

CNBC: Treasury yields fall as investors digest latest inflation data 물가 지표 발표에 국채 금리도 하락

- 투자자들이 어제 발표된 데이터와 물가에 대한 관세 여파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채 금리는 수요일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
- 10년물 금리의 경우 4 베이시스 포인트 낮아진 4.254%, 2년물은 2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3.71%, 10년물의 경우는 4베이시스 낮은 4.842%로 거래되고 있다.
- 한마디로 투가자들은 어제 발표된 물가 지표를 보고 관세가 물가 인상을 가속화 하지 않고 있다고 안도감을 보이고 있다. CME의 FedWatch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96%로 트레이더들은 반영하고 있다.

SYMBOL	↑	COMPANY	YIELD	CHANGE
US10Y	+	U.S. 10 Year Treasury	4.235%	-0.058
US1M	+	U.S. 1 Month Treasury	4.31%	-0.005
US1Y	+	U.S. 1 Year Treasury	3.861%	-0.037
US2Y	+	U.S. 2 Year Treasury	3.679%	-0.052
US30Y	+	U.S. 30 Year Treasury	4.826%	-0.059
US3M	+	U.S. 3 Month Treasury	4.219%	-0.023
US6M	+	U.S. 6 Month Treasury	4.057%	-0.027

CNBC 기사

[무역전쟁]

Reuters: Just in time? Manufacturers turn to AI to weather tariff storm 제조업체들, 관세 피해 줄이기 위해 AI 사용

- 예컨데 잔디깎이 제조업체인 Toro Company 등 제조업체들은 관세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 공급망을 관리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.
- 예컨데 공급망 관리를 위한 생성형 AI 투자에 오는 2029년까지 5백5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.
- 물론 전문가들은 재고 관리에 AI가 도움을 주시면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.

Reuters 기사

WSJ: GE Appliances Plans \$3 Billion U.S. Investment to Help Blunt Tariffs

GE 얼라이언스, 관세 극복 위해 미에 30억불 투자 계획

- 중국계가 소유한 GE Appliances는 사우스캐롤라이나, 테네시, 조지아, 알라바무에 있는 관련 공장들을 확대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3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.

- 이같은 투자로 인해 가전 제품의 새로운 모델을 생산하고 1천명의 일자리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.
- 이 회사의 책임자는 관세 사태가 오히려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.

WSJ 기사

[주택]

CNBC: Weekly mortgage refinancing demand shoots 23% higher, with riskier loans making a comeback

주간 모기지 재융자 수요 23% 증가

- \$806,500 이하 융자를 기준으로 30년 모기지 이자율은 6.77%에서 6.67%로 떠 떨어졌다.
- 특히 모기지 거래중에 재융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의 41.5%에서 46.5%로 증가했다.
- 주택을 구입하는 모기지 신청자는 1% 상승했으며 특히 작년 동기간과 비교해서는 17% 상승했다.

CNBC 기사

[오일]

WSJ: IEA Lifts Global Oil Supply Forecast, Signaling Bigger Surplus

Ahead

IEA, 글로벌 오일 공급 전망 상향 조정

- 국제에너지 개발 기구는 올해 오일 과잉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. 공급 증가가 수요를 3배 이상 앞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
- 오일 생산량 OPEC+에서 증가하겠지만 특히 미국을 비롯한 비 OPEC+ 국가들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.
- 글로벌 오일 수요 성장세는 경제 전망, 특히 중국, 인도, 브라질 등의 경제 전망이 않좋아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.

WSJ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YahooFinance: Amazon expands same-day grocery delivery to perishable foods to compete with Instacart, Walmart

아마존, 월마트 등과 경쟁 위해 당일 배송 확대

- 아마존의 프라인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은 딸기, 우유, 고기, 냉동 저녁 거리등을 당일에 배송 받을 수 있게 된다. 이 회사는 상하기 쉬운 신선 제품들을 당일에 배

- 송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.
- 이 회사가 신선 제품들을 배송하는 월마트와 Instacart와 경쟁하고 있다.
 - 아마존은 구체적으로 미국내 1천개 이상의 도시에 수시간내에 배송하가 되는데 올해말 까지 해당 도시지역을 2천3백개로 늘릴 예정이다.

YahooFinance 기사

[보고서]

뉴욕증시, 인플레 우려 완화에 1%대↑...S&P 500 최고치 경신

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 범위에 머물고 9월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12일(현지시간)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.

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83.52포인트(1.10%) 오른 44,458.61에 거래를 마쳤다.

스탠더드앤드푸어스(S&P) 500 지수는 전장보다 72.31포인트(1.13%) 오른 6,445.76에,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96.50포인트(1.39%) 오른 21,681.90에 각각 마감했다.

S&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날 각각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.

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란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'깜짝 반등' 없이 예상 수준에 머물면서 투자자들을 안도하게 했다.

.....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YahooFinance 기사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